

2011년 봄학기
전 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메시지 18

로마서에서

(2)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새 남편

성경: 롬 6:3-6, 10, 7:2-4, 6

- I.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롬 6:3-6.
- A.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고,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았다—3 절.
1. 침례란 우리와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어 그분을 우리의 영역으로 삼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하나로 연결되기 위한 것이다—마 28:19, 갈 3:27.
 2. 로마서 6 장 3 절은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의 사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주(支柱)이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일부가 되었다.
 3.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안으로 침례 받은 하나의 영역이다.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가 체험하는 분이시며, 우리의 누림이시다.
- B.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을 때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았다—3 절.
1.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은 하나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효능 있는 죽음의 요소를 전달한다—빌 3:10.
 2. 그리스도인의 삶은 침례의 삶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안에 있는 요소인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매일 체험할 수 있다—1:19, 요 7:39.
 3.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의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롬 6:4 상.
- C. 그리스도처럼 부활한 믿는 이들은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해야 한다—4 하.
1. 생명의 새로움은 부활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자신이신 생명 주시는 영과 내재적으로 연결된다—요 11:25, 고전 15:45 하.
 2. 여기에서 부활은 현재의 과정이다.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는 것은 부활의 영역 안에서 살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다—롬 6:4, 5:17.
 3. 6 장 4 절에 언급된 생명의 새로움은 5 절에 언급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양이다.
- D.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란 믿는 이들은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이다—5 절.
1. 그분의 죽음의 모양이란 4 절에 언급된 침례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침례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양이기 때문이다.
 2.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성장 과정을 가리킨다—5 절.
 3. 로마서 6 장 5 절에 계시된 사람은 접붙임과 관련된 것이다—11:17, 19.

- a. 접붙임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신 그분의 생명과 특성에 참여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란다—요 15:4-5, 롬 6:5.
 - b.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역사가 되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으므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이제 우리의 것이다—갈 2:20, 엡 2:5-6.
- E. 믿는 이들의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장사됨으로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죄의 몸은 무력하게 되었다—롬 6:6, 18-22.
- F.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한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지시와 통제 아래 살고, 그분의 요구를 이루고 그분의 갈망을 만족시키고 그분의 의도하시는 바를 완성하기를 갈망하는 것을 의미한다—10 절.

II. 우리는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7:2-4, 6.

- A. 믿는 이들은 거듭난 존재들로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그들의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그분의 아내의 일부이다—고후 11:2.
- B. 우리의 옛 남편이었던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옛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곧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이신 새 남편에게 연결된다—롬 6:6, 7:4.
- C. 믿는 이들로써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신분이 있다.
1. 첫 번째 신분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본래의 위치를 떠나 하나님에게서 독립되어 남편과 머리로서 독단적인 위치를 취한 사람, 곧 타락한 옛 사람으로서의 옛 신분이다—6:6.
 2. 두 번째 신분은, 본래의 합당한 위치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참된 아내로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머리로 삼는 거듭난 새사람의 새로운 신분이다—사 54:5, 고전 11:3.
- D.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신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한 것이다. 아내라는 새 신분으로 우리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인격과 이름과 생명과 존재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결을 갖고, 이제 아내로서 하나님의 넘쳐 흐름으로 하나님을 산출하는 열매를 하나님께 맺는다—롬 7:4, 고후 11:2.
- E. 아내로서 우리는 문자의 낚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으로 섬긴다—롬 7:6.
1. 우리의 생활을 위한 생명의 새로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됨으로 산출된 것이며,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행함을 위한 것이다—6:4.
 2. 영의 새로움은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산출된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7:6.
 3. 생명의 새로움과 영의 새로움은 둘 다 그 영과 관련된다.
 - a. 생명의 새로움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 안의 그리스도 자신과 관련된다—고전 15:45 하.
 - b. ‘영의 새로움’ 이라는 구에 있는 영은 그 영께서 거하시는, 우리 거듭난 사람의 영이다—딤후 4:22.
 - c.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매로 맺고 영의 새로움으로 섬기기 위한 것이다—롬 7:4, 6.